

대행 스님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거지 진리는 걸림이 없다

큰스님 … 공생으로서 공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만날 찧고 까불고 찧고 까불고, 예전에 선지식들이 "야, 구더기 놀듯 하는구나." 이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놀아서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이 좌석에서 이렇게 했듯이 바로 오늘이 삼천 년 전 그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항상 부처님은 계신 거지 오시는 것도 없고 가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공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도 바로 보살행입니다.

사회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문자1(여) 애기 아빠가 삼재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서 삼 년 동안 뭐가 있대요. 그 안에 뭘 해도 안 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깐 주위에서 그래요, 이사를 가라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시골에 우리 땅도 좀 있고 또 애기 앞으로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보태 가지고 집을 살까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기 아빠가 삼재가 들어서 집을 살 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지금 살면서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제가 위험한 것도 있다 해서 괜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 절에만 자꾸 오고 싶고,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뜻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듣고 오니까 그냥 답답하네요. 제 생각에는 집을 살까 했었거든요. 집도 살 운이 안 된다 하니깐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도 또 세를 살아야 돼요. 우리 애기에게 나온 그 보상금은 될 수 있으면 땅에나 집에다 좀 묻고 싶었는데…. 보태도 그 돈 갖고 집은 못 사니까 시골에 있는 논밭을 좀 팔아서 할까 했지만 부모님 말씀이 그러니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큰스님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다 들었지만 하치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가정에서든지 횡횡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높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돌아가는 말들을 타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삼재가 들어서 집도 못 사고, 벌이할 운도 못 되고 또 이사 갈 운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을 곧이듣는, 속는 당신도 그르지만 그렇게 일러 주는 그분도 그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면 그럴 리가 없죠. 당신도 모르니까 또 그걸 곧이듣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알면 그거 들으러 갈 것도 없고 또 듣고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살님, 들어 보십시오. 보살님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법이요, 내가 집을 살 처지가 된다면 집을 그냥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이사를 가면 나쁘다 좋다, 내년이 나쁘고 올이 좋고 또 삼재가 들었고…. 삼재가 도대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삼재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삼재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재가 들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한생각 먹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삼재가 들어서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몸이 지금 아픕니다.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했는데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는 해에 아, 그거 보고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니 이걸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백 일을 기도를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려야만이 삼재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잘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니깐 그러겠지.' 하고 역시 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백 일씩 세 번 드리는 것도 삼 일이면 세 백 일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삼천 년을 천 년으로 해도 되고 천 년을 하루로 해도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한 울 천' 했다 이거야. '한 울'이면 하늘과 땅, 인간을 그냥 합해서 '천'으로 했다 이거야. 그럼 천이 하나다 이거야. 일심이다 이거야. '한 울'이 이렇게 한데 모아서 '천' 했으니까 그게 하나로도 돌아간다,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 삼재는 삼재가 따로 있고 삼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살님, 죽지 않으면 되고 병 앓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사를 가도 내가 일요일 날 식구가 다 모여서 아주 순수하고 편안하게 먹을 거라도 지어 가지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거라. 허허허…. 아니, 왜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이 좋다고 해서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 새에 고생을 하느냐? 내 마음의 부처가 모든 부처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생 만물이 다 내 한마음에 들어 있다면 구태여 어디 걸릴 게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는 날은 너무나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가면 좋겠다 하면 그 날이 좋은 날이다. 뭐든지 걸리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금방 그 소리 듣고요, 병도 사흘도 못 돼서 나았어요. 병도 나았거니와 그해에 얼마나 장사가 잘됐는지 말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죽긴커녕 장사가 잘돼서 아주 고맙다고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그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음이 벗어나면 육신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이구, 살기도 바쁘게 벌어다가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 보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질문자1(여) 우리 애기 아빠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저 역시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깐 '아, 그럼 진작에 절이나 어디 나가서 저거 했으면 혹시 그런 거를 안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애기 아빠하고 전부 다 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뭐, 삼재가 들어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시골서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애기 아빠가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 가지고 의료원 가니깐 전염성 노이로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증상이.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되니까 약을 먹는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보름인지 뭔지 모르고….

큰스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 나쁘게 만드네,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남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잖아!

질문자1(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기 전부터 오래됐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게. 그래 가지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까지 가서 약을 먹다가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자기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식으로 약을 먹어도 모르겠다 그거예요. 아무 약 반응이 없고.

근데 그때 보름날인데, 큰스님 얼굴이 어느 날 아침 새벽녘 꿈인지, 하여튼 얼굴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꿈속에. 그래서 '내가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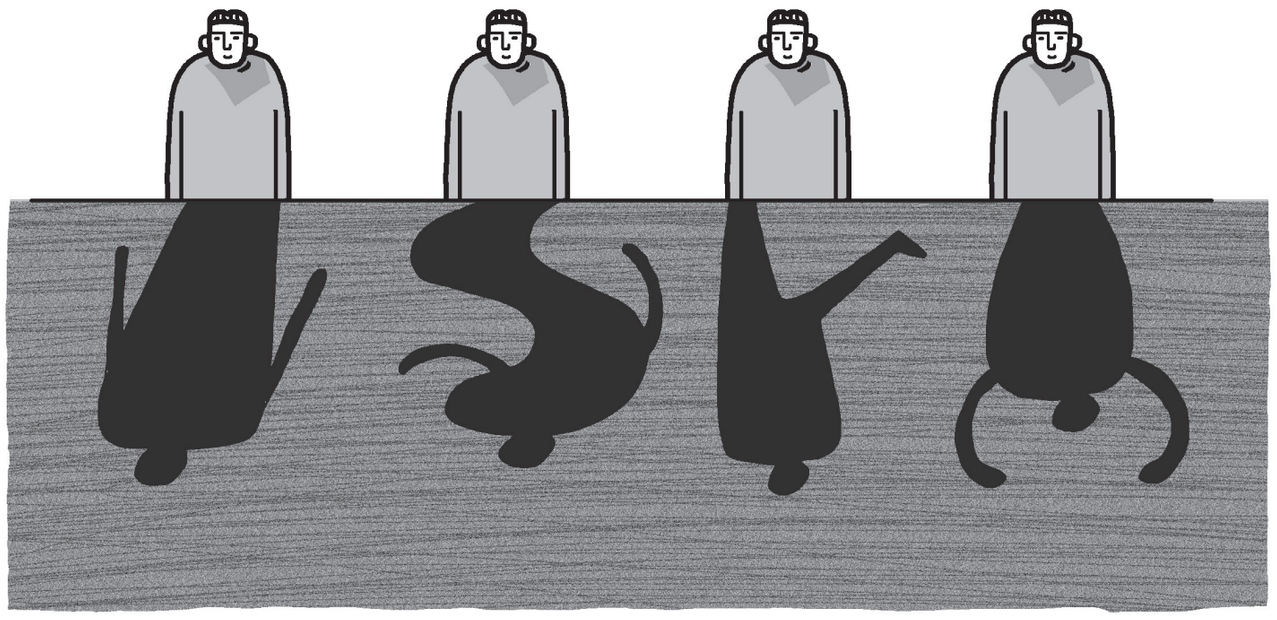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